

新羅 聖住寺碑 (신라 성주사비)

黃 壽 永
〈東國大學校 博物館長〉

(1)

1960년과 1962년 8월 23일 양회(兩回)에 걸쳐서 충남 보령군 미산면(帽山面) 성주리(聖住里) 신라 성주사지(聖住寺址)로부터 파쇄(破碎)된 이수(螭首)와 귀부(龜趺) 및 3개의 비석편(碑石片)을 국립박물관 부여분관(扶餘分館)으로 이관(移管)¹⁾한 바 있었다. 그 후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의외에 2基分の 비석(碑石)의 파재(破材)임이 밝혀졌으며 비석편 또한 자경(字徑)과 자체(字體)에서 대편(大片) 및 소편(小片)의 2개석(個石)과 중편(中片) 1개석이 각이(各異)함이 알려졌다. 그리하여 현존하는 국보 8호인 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파비편(破碑片)]은 그 동북방(東北方)에 있었다를 넣어서 計 3基의 비석이 동일사지(同一寺址)에서 전래하여온 사실이 추정되었는데 이같은 새로운 사실은 나아가 동사지 금당지(同寺址 金堂址) 후편(後便)에 열립(列立)하는 3층석탑 3基와 관련시켜서 그들을 모두 탑비(塔碑)로 보려는 논의²⁾가 있기도 하였다. 필자는 이들 신수(新收)의 비편(碑片)을 판독하여 「금석유문(金石遺文)」(1963년 8월 고고미술동인회간(考古美術同人會刊))비명편(碑銘篇))에 「성주사일명비(聖住寺逸名碑)」라 하고 3개 碑片을 기일(其一), 기이(其二)로 구별하여 수록한 바 있었으나 그들의 성질을 밝히지는 못하였었다.

그런데 필자는 금년 8월 정명호(鄭明鎬)씨를 통해서 전남 구례 화엄사(華嚴寺)의 정휘헌 노사(鄭彙憲 老師)로부터 친히 사찰 사료(寺刹 史料)를 집록(集錄)한 사본 일책(寫本 一冊)을 받은 바 있었는데 그 초두(初頭)에서 「승엄산성주사사적(崇嚴山聖住寺事蹟)」(이하(以下)「사적(事蹟)」이라 약칭(略稱))을 주목하고 경희(驚喜)한 바 있었다. (「고고미술(考古美術) 9卷9號 자료편(資料篇)」에 실었는데 본고(本稿)에 다시 부록(附錄)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문(記文)에서 「최치원소찬비일(崔致遠所撰碑一)」이라한 현존하는 낭혜비(朗慧碑)를 가리키는 문자에 곧 이어서 다시 「한림랑아찬금립지소찬선일파(翰林郎阿湊金立之所撰碑一破)」라 기록되고 있음에서 상기(上記)한 바 2基分の 파비편(破碑片) 중 어느 것이나 이 기사(記事)에 보이고 있는 「금립지소찬비일파(金立之所撰

1) 李殷昌: 保寧 聖住寺址의 逸名塔碑 (「考古美術」 2-9 1961年 9月)

朴日薰: 保寧聖住寺址逸名碑片 (「考古美術」 3-10 1962年 10月)

2) 李殷昌: 保寧 聖住寺址 調査報告-3層石塔과 墓碑를 中心으로- (「亞細亞研究」 十卷四號 1967年 12月)

碑一破)」에 해당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이 「사적(事蹟)」의 출처와 그 연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는 없으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성주사(聖住寺)³⁾가 현존사관(現存寺觀)으로 실려있으며 오직 낭혜화상탑비(朗慧和尚塔碑)만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조선조 중기이전(朝鮮朝 中期以前)으로 볼 수 있을가 한다. 그렇다면 벌써 이때는 낭혜비(朗慧費)만을 남기고 타(他) 2비(碑)는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기한 바와 같이 「사적」에서 「금립지소찬비일파(金立之所撰碑一破)」라 한 것이 또한 저간(這間)의 소식을 전하여 주는 것으로 짐작된다⁴⁾. 성주사(聖住寺)는 구전(口傳)에 의하면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소진(燒盡)되었다고 하는데 출토유물에서 미루어 조선조(朝鮮朝)까지 존속되었던 것이 틀림없다.

(2)

이와 같이 파비(破碑) 일좌(一座)의 소재를 전하는 「사적(事蹟)」 이외에 이 금립지찬비(金立之撰碑)에 대하여서는 성주사지(聖住寺址)에 엄존하는 최치원찬(崔致遠撰) 낭혜화상비문중(朗慧和尚碑文中)⁵⁾에서 그 보다 앞서서 금립지찬비(金立之撰碑)가 건립되어 있었던 사실과 또 그 비문의 내용을 다소나마 짐작케하는 문자(文字)가 보이고 있으니

見 大師西遊東返之歲年 稟戒悟禪之因緣 公卿守宰歸仰 像殿影堂之開□ 故翰林郎金立之所撰

견 대사서유동반지세년 품계오선지인연 공경수재귀양 상전영당지개□ 고한림랑금립지 소선 聖住寺碑 敍之詳矣 (방점필자(傍點筆者)) 라 하였고 또 이어서

성주사비 서지상의

這有上足苾芻來趣□曰 語及斯意則曰 立之碑立之久矣 尙闕數十年遺美

저유상족필추래취□구 어급사의즉왈 입지비립지구의 상결수십년유미

3) 東國輿地勝覽 卷20 藍浦 佛宇주條에 「聖住寺 在聖住山北 有崔致遠所撰大朗慧和尚塔碑」라 하였다.

4) 이같은 觀點에서 「이들 碑는 數十年前에 破摧되었다」고 한 것은 再考되어야 할 것이며 (朴日薰氏論文 註1) 「碑身이 數十年前에는 굴러있었다고도 하고 埋沒되었다고도 하므로, 確實하지는 않다」(李殷昌氏報文 註1)고 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

5) 朝鮮金石總覽 上卷 72頁 藍浦 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上卷 136頁



金立之選 新羅聖住寺 碑片(拓本) (扶餘博物館 所藏)

김립지선(金立之選) 신라성주사(新羅聖主寺) 비편(碑片)(탁본(拓本))
<부여박물관(扶餘博物館) 소장(所藏)>

라 하였다. 이와 같은 기문(記文)에서 김립지(金立之)의 벼슬이 한림랑(翰林郎)이었다는 것과 더불어 그의 소찬비명(所撰碑銘)이 「성주사비(聖住寺碑)」라 명기(明記)하고 있음에서 그것이 곧 성주사(聖住寺)의 창건에 따르던 사적비(事蹟碑)로 추정되는 동시에 「립지비립지구(立之碑立之久矣)」라 하고 「상궐수십년유미(尙闕數十年遺美)」라고 한 점에서 낭혜비(朗慧碑)보다도 훨씬 오래고 수십년이나 앞서서 건립된 사실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김립지소찬비(金立之所撰碑)를 성주사사적비(聖住寺事蹟碑)로 추정케 하는 것은 상인(上引)한 바와 같이 먼저 낭혜비문(朗慧碑文)에서 인데 다음에 부여박물관에 수장(收藏)된 상기(上記)한 바 3개 비편중(碑片中) 대소(大小) 2片 특히 대편(大片) 1개에서 판독된 다음과 같은 8행 계 61자의 유문내용(遺文內容)이 또한 성주사(聖住寺) 창건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위에서 인용한 낭혜비문 중(朗慧碑文中) 필자가 방점(傍點)을 달은 바와 같은 「공경수재지귀앙(公卿守宰之歸仰)」과 「상전영당지개□(像殿影堂之開□)」을 전하는 것이 아닐가 한다. 이 비편(碑片)은 구양순체(歐陽詢體)의 해서(楷書)로서 자경(字徑)은 2cm이다.

組成功德

조성공덕

□檻璇題 駕□鱗□

□함선제 원□인□

租稻充入鑄像工價魏昕伊滄

조도충입주상공가위흔이찬

文紫磨金色臨寶座以益光□

문자마금색임보좌이익광위

之堂租稻已至於寺林衡運

지당조도기지어사림형운

宜和夫人是允興伊滄

의화부인시윤희이찬

潺湲高峯□日

잔원고봉□일

年月□

그리하여 이 대편(大片)의 유문(遺文) 중 「조도충입주상공가(租稻充入鑄像工價)」라고 있어 주상(鑄像)⁶⁾의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위흔이찬(魏昕伊滄)⁷⁾ 윤희이찬(允興伊滄)⁸⁾과 의화부인(宜和夫人) 등 당시의 왕권에 밀접하던 인물들 특히 이 성주사(聖住寺) 창건의 단월(端月)이었던 위흔김양(魏昕金陽)이 보이고 있음에서 이 비편이 바로 김립지찬(金立之撰)의 성주사적비(聖住寺蹟碑)로 우선 추정하여 두어도 좋을 것 같다. 신라 왕실의 역대군왕이 특히 그 하대에 이르러 남원 실상사(實相寺)나 장흥 보림사(寶林寺) 같은 선문구산(禪門九山)의 창립을 위하여 관여했으며 혹은 원당(願堂)을 해인사(海印寺) 동화사(桐華寺) 등에 설치한 사실은 또한 선문(禪門)9山の 하나인 이 성주사(聖住寺)의 창건사유에서도 찾을 수사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적(事蹟)」에서 김전대왕(金傳大王)의 탄사를 기록하여 「대낭혜화상동조성골야(大朗惠和尚同祖聖骨也) 성주선원내선조소건원찰야(聖住禪院乃先祖所建願刹也)」라고 전한 까닭이기도 하다. 왕자(王子) 김흔(金昕)이 이 성주사 창립에 직접 참여한 것은 그와 낭혜화상(朗慧和尚)과의 깊은 오랜 인연과 그 자신이 「부복사관(不復仕官) 입소백산(入小白山) 갈의소식(葛衣蔬食) 여부도유(與浮圖遊)」하던 위인(爲人)임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신라 헌덕왕(憲德王) 17年 화상(和尚)은 흔(昕)을 따라서 처음으로 당(唐)에 건너갈 수 있었으며⁹⁾ 그 후 재

6) 「事蹟」에 毘盧遮那佛一大尊像이라한 것이 이 鑄像에 該當되는 것으로 推定된다. 아마도 이 聖住寺本尊鑄像은 韓日合邦 무렵에 日人이 搬出하였다고 部落古老들이 證言하는 巨大한 鐵像임이 틀림없다. 이에 대하여서는 李殷昌氏 報文 「忠南散逸文化財1, 聖住寺金屬佛像」(考古美術9-2) 參照. 그 크기에는 成人이 佛像(坐像) 무릎위에 서서 겨우 귀를 손으로 만질 정도의 훌륭한 철불이었다 한다.

7) 三國史記 卷11 文聖王4年 春3月條에 「納伊滄魏昕之女爲妃」라 보이며 同王9年 8月條에 「伊滄魏昕爲侍中」 同王10年 春夏에 「侍中魏昕退」라고 보인다. 聖住寺 開□年으로 보이는 文聖王 9, 10年間에 侍中이었던 것은 특히 注目할 만하다. 「事蹟」에 「唐宣宗大中元年丁卯冬 十一月十一日 至烏合寺 其夜雪下半腰 假住數日 僧裕寂梵行志崇三人先居之 固請住止文聖大王亦遣 宰相魏昕泰昕請居 因住錫焉」이라 있어 그가 創建에 重大한 關係가 있음을 傳하고 있다. 魏昕은 金陽으로서 泰昕은 金昕으로서 三國史記 卷44 列傳 第4 金陽傳에 兩人이 보이고 있다.

8) 三國史記 卷11 景文王6年 冬10月條에 伊滄允興與弟叔與季興謀逆 事發覺走垓山郡 王命追捕斬之 夷一族 이라보이며 同書 卷32 志一 樂條에도 보이고 있다. 碑文中에 「宜和夫人是允興夷滄」이라고 있어 宜和夫人과의 關係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들이 또한 聖住寺와 關係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9) 朗慧和尚碑文의 「泊長慶初朝正王子昕艤舟唐恩浦請寓載許焉」이라 보이는데 이때 金立之 또한 入唐하였다. 王子

당(在唐) 20여 년만에 귀국(신라 문성왕(文聖王) 7년 서기 845년)하여 성주사에 주석(住錫)케 된 것도 또한 산중재상(山中宰相)이라 일컫던 김흔(金昕)의 청주(請住)¹⁰⁾를 받았기 때문이다. 왕자 흔(昕)은 당시의 중시(重視)이었던 위흔(魏昕)과 더불어 문성왕(文聖王)의 뜻을 받들어 낭혜화상(朗慧和尚)의 주석(住錫)과 성주사(聖住寺) 창건을 위하여 진력(盡力)하였으니 고승(高僧)과 왕자와 중신들이 때와 지연(地緣)을 얻어 마침내 일대가람(一大伽藍)이 왕실(王室)의 원찰(願刹)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마치 그보다 앞서서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일대 일차(一代 一次)의 원찰(願刹)로서 경주 토함산(吐含山)에 불국석불(佛國石佛) 양사(兩寺)를 경영할 때 당시의 중시(中侍)를 지낸 김대정(金大正)¹¹⁾[김대성(金大城)]이 거역(巨役)을 감역(監役)한 관계와도 대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신라 문성왕(文聖王)의 원찰(願刹)로서 사명(寺名)을 바꾸어 성주사(聖住寺)라 하였으니 현존(現存)하는 낭혜비문(朗慧碑文)에서 또한 「이사방위성주(易寺勝爲聖住)¹²⁾ 잉편록대홍륜사(仍編錄大興輪寺)」라한 까닭이며 「사적(事蹟)」에서 「비로차나불일대존상(毘盧遮那佛一大尊像) 삼천불상(三千佛相)내문성대왕조(乃文聖大王造) 성원불야(成願佛也)」라 한 것이다.

(三)

다음에 성주사비(聖住寺碑)의 찬자(撰者)인 김립지(金立之)의 위인(爲人)에 대하여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卷)10 헌덕왕(憲德王) 17년(825) 5월조(條)에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

遣王子金昕入唐朝貢 遂奏言 前任大學生崔利
견왕자김흔입당조공 수주언 선임대학생최리
貞金叔貞朴季業等請放還蕃 其新赴朝金允夫
정김숙정박계업등청방환번 기신부조김윤부
金立之朴亮之等一十二人 請留宿衛 仍請配國
김립지박량지등일십이인 청유숙위 잉청배국
子監習業鴻臚寺給資糧從之
자감습업홍려사급자량종지

그런데 이 기사(記事)는 다만 그가 이 때 입당(入唐)하는 왕자(王子) 흔(昕)을 따라서 새로 교체되는 유학생(留學生) 계 12인 중의 1인으로서 김윤부(金允夫), 박양지(朴亮之) 등과 더불어 오직 그 이름만이 실려 있을 따름이다. 그리하여 그는 숙위(宿衛)에 머무르고 국자감(國子監)에서 학업(學業)을 닦게 되었는데 그 후의 재당기(在唐期)나 귀국년(歸國年) 또는 그 후 국내에서의 행적 등에 대하여서는 문헌에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가 귀국하였던 것은 확실하다 하겠으며 낭혜비문(朗慧碑文)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昕을 金陽(魏昕)으로 推定하여온 것은 잘못이다.

10) 同上碑文에 「會昌五年來歸 帝命也 國人相慶曰連城壁復還天實爲之地有幸也自是請益者所至稻麻矣..... □北行擬目選終焉之所會王子昕」云云이라 하였다.

11) 金大城을 金大正으로 比定하여 佛國石佛 兩寺 創建의 實在人物로 삼은 것은 李基白教授의 中대한 發見이다. 李教授의 「新羅執事部の 成立」(『震檀學報』第25・6・7 合併號 28頁 註47)

12) 李能和著 朝鮮佛教通史 上卷 140頁에는 「易寺榜爲聖住」아래 附註하여 「寺舊名烏合寺」라 하였는데 이것은 「事蹟」을 따르는 것 같다. 이 烏合寺는 百濟代의 寺院임이 틀림없는데 三國史記 卷 28 百濟 義慈王15年條에는 「北岳烏合寺」라 보이며 三國遺事 卷1 太宗春秋公條에는 「烏會寺 一云烏合寺」라 하였다. 1968年 5月 聖住寺址에는 百濟蓮花紋瓦當이 收拾되어 東國大博物館에 收藏되었다.

한림랑(翰林郎)의 벼슬을 지냈으며 또 「사적(事蹟)」에 의하면 그가 아찬(阿澹)¹³⁾이 있던 사실도 아울러 알 수가 있다.

위와 같이 삼국사기(三國史記)와 낭혜비문(朗慧碑文) 중에 그의 이름이 보이는 이외에 김립지(金立之)에 관하여서는 또 하나의 가장 확실한 금석문 자료(金石文 資料)가 알려지고 있다. 그것은 일찍이 경주 창림사 삼층석탑(昌林寺 三層石塔)에서 발견되어서 완당 김정희(阮堂 金正喜)에 의하여 기록된 이 석탑(石塔)의 동판명(銅板名)인 「국왕경웅조무구정광탑원기(國王慶膺造無垢淨光塔願記)」(본고 부록(本稿 附錄) 2)¹⁴⁾이다. 이에 의하면 그 제2행에 「한림랑(翰林郎) 신수추성군태수신김립지봉(新授秋城郡太守臣金立之奉) 교찬(敎撰)」이라고 기각(記刻)되어 있어서 그가 이 원기(願記)의 찬자(撰者)임을 의심할 수가 없다. 또 낭혜비문(朗慧碑文)에 보이던 한림랑(翰林郎) 이외에 그가 추성군태수(秋城郡 太守)이었던 사실을 새로이 알 수가 있다. 추성군(秋城郡)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권삼십육(卷三十六) 지리지(地理志)에 보이는 무주 추성군(武州 秋成郡)에 비정(比定)되며 오늘의 전남 담양의 땅이다. 군태수(郡太守)의 위계(位階)가 사지(舍知)로부터 중아찬(重阿澹)에 이르고 있으므로 사적(事蹟)에서 「아찬(阿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김립지(金立之)가 당(唐)에서 돌아와 문성왕대(文聖王代)를 중심으로 일대(一代)의 문장(文章)으로서 유명하였던 사람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낭혜비문(朗慧碑文)에서는 그에게 고자(故字)를 관(冠)하고 있으니 이 비문(碑文)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는 이미 고인(故人)이었던 것도 또한 틀림없다. 그리하여 그의 입당년(入唐年)¹⁵⁾인 헌덕왕(憲德王) 17년 서기 825년에서 이 낭혜비(朗慧碑) 찬문(撰文)의 추정년(推定年)인 신라 효공왕(孝恭王) 원년(元年)이나 동(同)2년경 (서기 898, 899)에 이르는 그 사이를 그의 재세년(在世年)의 최장기(最長期)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그의 몰년(沒年)은 그가 성주사비(聖住寺碑)를 찬(撰)한 해로부터—그것은 성주사(聖住寺) 창건이 비롯하는 해라고 추정되는 낭혜화상(朗慧和尚)의 주석(住錫)의 해인 문성왕(文聖王)9년(847)으로부터 그다지 멀지는 않은 연대일 것이다—최치원(崔致遠)이 낭혜비(朗慧碑)를 찬(撰)한 상기(上記)한 연대에 이르는 그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그의 몰년(沒年)을 정확하게 가릴 수는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본고(本稿)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의 성주사비(聖住寺碑)의 찬년(撰年)에 대하여서만은 좀 더 고찰을 진행시킬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의 찬비(撰碑)가 성주사사적비(聖住寺事蹟碑)임이 틀림없고 또 위에서 인용(引用)한 낭혜비문(朗慧碑文)에서 본 바와 같이 「입지비입지구익(立之碑立之久矣)」나 「상궐수십년유미(尙闕數十年遺美)」라 있음에서 그가 「성주사비(聖住寺碑)」를 찬(撰)한 연대는 우선 850년대에서 늦어도 860년대로 잡을 수가 있을까 한다. 그런데 이같은 김립지찬비(金立之撰碑)의 추정 연대는 다시 동사지(同寺址)에서 수습(收拾)된 3개의 비편(碑片) 중 위에서 전문(全文)을 싣고 김립지찬비(金立之撰碑)로 추정(推定)한 바 있는 대편(大片)의 유문(遺文) 중에 「위흔이찬(魏昕伊澹)」이라는 귀중한 문자(文字)가 보이고 있음에서 더욱 압축(壓縮)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위흔(魏昕)이 향년(享年) 50으로서 대중(大中) 11년 8월 13일 [문성왕(文聖王) 19년 서기

13) 上註7 參照

14) 朝鮮總督府刊 慶州南山佛蹟 16頁와 第7圖 拙編: 續金石遺文所收 昌林寺無垢淨塔願記, 末松保和: 昌林寺無垢淨塔願記(「新羅史の諸問題」1954年 東洋文庫刊 所收)

15)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283頁 朗慧和尚碑

857]에 홍거(‘薨去)한 사실이 삼국사기(三國史記) 권사십사(卷四十四) 열전(列傳) 제사(第四) 금양조(金陽條)에 분명하므로 그가 이찬(伊飡)으로서의 생존연한(生存年限)을 주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몰후(沒後) □발한(□發翰)이 추증(追贈)되었기 때문인데 김립지비(金立之碑)에서 그를 이찬(伊飡)으로서 기록하고 있다면 이 비(碑)는 위흔(魏昕)의 존세시(存世時)에 찬문(撰文)된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실제에 있어서 이보다 훨씬 연대가 늦은 최치원찬 낭혜비(崔致遠撰 朗慧碑)에서는 같은 인물인 위흔(魏昕)을 기록하여서 「헌안대왕(憲安大王) 여단월계 사□발한위흔위남북상(與檀越季□發韓魏昕爲南北相)」이라고 추증(追贈)을 관(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김립지찬 성주사비(金立之撰 聖住寺碑)를 낭혜화상(朗慧和尚)이 동사(同寺)에 주석(住錫)케 된 그 해로부터 위흔(魏昕)의 몰년(沒年)까지(서기 847년부터 857년)의 10년간으로 더욱 좁혀서 추정(推定)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낭혜비문(朗慧碑文)에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낭혜지주(朗慧止住) 이 후 「도대행사대성(道大行寺大成)」하였다는 연대를 850년대로 보고 김립지찬(金立之撰)의 사적비문(事蹟碑文) 또한 이 때(아마도 850년대 전반(前半)인가)에 마련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 때는 신라 문성왕대(文聖王代)로서 당(唐)의 대종연간(大中年間)에 해당한다. 그리고 김립지(金立之)의 입당유학년(入唐留學年)[서기 825년]이 그의 20세 전후(前後)이었다고 본다면 그가 귀국 후 이 성주비(聖住碑)를 찬(撰)하던 때는 그의 나이가 50을 전후하였을 것이다. 그가 문성왕(文聖王)의 원탑건립(願塔建立)을 위하여 탑명(塔銘)을 찬(撰)한 연대가 대종구년(大中年間)[서기 855년]이므로 또한 성주사비(聖住寺碑)와 전후(前後)하였을 것이다. 최치원(崔致遠)이 낭혜비(朗慧碑)를 찬(撰)할 때 그에게 고자(故字)를 관(冠)한 것은 수십 년의 격년(隔年)에 미루어 또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4)

필자가 김립지찬 성주사비(金立之撰 聖住寺碑)로 추정한 부여박물관에 이관(移管)되어 있는 2개의 비편(碑片)은 대편(大片)이 길이 40cm 넓이 28cm 두께가 24cm 소편(小片)¹⁶⁾이 길이 17.3cm 넓이 15.3cm의 암흑색 청석류(靑石類)로서 현재 삼각형을 이루는 원비 상단부(原碑 上端部)의 잔결(殘缺)인 대편(大片)과 기외(其外)의 일편(一片)이다. 이들은 동사지(同寺址)에 방치(放置)되어 있었던 이수(螭首)와 귀부(龜趺) 등 석조파편(石彫破片)의 운반(運搬)에 따라서 그 부근의 돌담 불속에서 우연히 수습(收拾)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들 양비편(兩碑片)의 탐색을 목적삼아서 그 일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혹시 새로운 비편(碑片)이 입수(入手)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고비편(古碑片)의 회수(回收)는 의외로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기본조사가 매우 소홀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앞으로 본격적 학술조사를 기하여 이 김립지찬 성주사사적비(金立之撰 聖住寺事蹟碑)의 내용(內容)이나 건립연대(建立年代) 등이 더욱 밝혀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자료만으로서도 성주사(聖住寺)에는 고래로 이름 높은 최치원찬비(崔致遠撰碑) 이외에

16) 이 小片은 상기한 金石遺文에 收錄할 당시(其二의B)로 하여서 「其一」의 大片과는 다른 碑石片으로 區別하였으나 그후 任昌淳氏의 敎示에 의하여 大片과 더불어 同一碑石片으로 추정되었다. 이 小片에는 오직 彌飯僧長有三「成群忍草」□의 4行計 11字 뿐으로 그 內容을 짐작할 수는 없으나 字體와 筆法이 大片과 同一하다. 이곳에서 訂正하여 두고자 한다.

그보다 앞서는 김립지찬비(金立之撰碑)가 엄존하여 왔던 사실과 그 연대가 동사창립(同寺創立)과 접근하는 9세기 중엽임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찬자(撰者)인 김립지(金立之)는 입당유학생(入唐留學生)으로서 귀국 후 문성왕대(文聖王代)를 중심으로 문필(文筆)에 종사하여 왕자(王子)의 원찰(願刹)과 원탑(願塔)을 위하여 문장(文章)을 남기었던 사실과 그의 관직(官職)과 위계(位階)도 알 수가 있었다.

그가 성주사비(聖住寺碑)를 찬(撰)한 까닭이 그가 낭혜화상(朗慧和尚)과 더불어 왕자(王子) 혼(昕)을 따라 입당(入唐)하였던 오랜 친연(親緣)이 아니었던가 우연하게 수집된 2개 비편(碑片)에 대한 주목과 그에 대한 졸견(拙見)을 적어 그 비명(碑銘)과 건립연대(建立年代)를 추정코자 하였다. 이 같은 작은 노력은 또한 김립지(金立之)의 위인(爲人)과 그의 유업(遺業)을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所願)하기 때문이다. (1968년 9월)

[附錄 一] 崇巖山聖住寺事蹟(승엄산성주사사적)

〔附錄 一〕 崇巖山聖住寺事蹟

聖住禪院者 本隋陽帝大業十二年乙亥 百濟國二十八世 惠王子法王所建烏舍寺 戰勝爲高麗國昇佛界之願刹也 時蓋前基趾起劫令被供(但)存第屋可(也) 新羅太宗大王八代孫 大朝和尚無染國師 唐懿宗貞元 十七年十二月二十八日午時誕生 年至十有三 宿習冥感求出三界 父母俱許 大憲憲宗元和八年 授雪岳山法性禪師 剃落頓悟禪宗 入大唐麻谷山 調寶微 乃江西馬祖道一禪師之上足也 梁師初講道契印可直傳心印 道播天下周流二十餘載矣 遇會昌五年乙丑沙汰勅外國禪僧各還本藩 命源州觀察使載饒食糗護送到海州連水縣 便值本國內回鑿獲光州錦城郡 新羅第四十六世文聖大王聞師還 命國人相慶曰 連城號復還天家爲之地有誰也 即賜手教親迎於宮君夫人世子孫公子公孫擢仰拜爲國師 自是 諸益者所至翫庵矣 唐宣宗大中元年丁卯冬十一月十一日 至烏舍寺 其夜雪下半腰 假住數日 僧祐改梵行志崇三人先居之因請住止 文聖大王亦遣宰相親詣奉請居因住錫焉 惠和尚才高德重無爲而化 不言而信 蓋前群賊輻湊諸益和尙猶嫌待叩似鏡現彩以慧昭傳其日法喜觀其真 由是群賊漸改過出家得道者百餘人 文聖大王親降神筆曰 鄒州是海隅壯靈人性凶傲朕爲畏不服 禪師既爲佛法雄杰道德堪任人自行善朕喜充抱請禪道爲國師坐 茶 香信物四時進環 因勅下曰 烏舍寺 禪師所居誠可尊嚴宜爲寺額 勅賜聖住禪院山曰崇巖斯乃曰師道也 改創蓮法堂五層重閣 三千佛殿九間 海莊殿九間 大雄寶殿五間定光如來殿五間 內僧堂九間 極樂殿三間 文殊殿三間 觀音殿三間 普賢殿五間 遮殿堂三間 十王殿七間 栴檀林九間 香積殿十間 住室七間 井園三間 鍾閣東行廊十五間 西行廊十五間 東西南北間各三間 鍾閣二層 中行廊三百間破 外行廊五百間破 基階猶存 水閣七間破庫舍五十間破矣 東西都統巡官蕭紫金魚袋崔致遠所撰碑一 翰林郎河真金立之所撰碑一破碑迦如來舍利塔 定光如來舍利塔 迦葉如來舍利塔 藥師如來舍利塔 四塔點青山雙鍊翠碧 大朝和尚白月光塔 安于西麓 思慮遠勝佛一大尊像 三千佛相安于三千佛殿 此三千佛尊過去莊曰劫一千佛 現在賢劫一千佛 未來宿星劫一千佛 三劫三千佛 乃文聖大王造成願佛也 是刹也 乾坐巽向歸

元水破疊峰帶海長岑回抱千峰壁立萬壑 朝宗大川蔚統 東枕古御津 南距藍浦 西臨天池 北背保寧縣 觀元白頭山 聯來 實鷄林之名山 馬聘之跳壇也 王太祖統合三國時 金傳大王(裕)治海西末傷嘆曰 大朝惠和尙 阿祖聖骨也 聖住禪院乃先祖所建顯赫也 率宮奴來居之 王太祖以公主處之賜賜土田奉饋三道食邑 金傳大王終身于茲 陵墓靈祠今在山頂矣 自文聖大王 歷憲安王景文王憲康王 至金傳大王 十一代也

〔附錄 二〕 慶州昌林寺無垢淨塔願記

(表面)

國王慶府造無垢淨塔願記

翰林郎新授秋城郡太守臣金立之奉 教撰
聞經之旨有爲功德厥數萬端而利物
無邊者莫若崇建塔廟伏以
國王廣刻修善位冠人天而慈有情之
沉浮苦海願廻六途將設拯濟之門
導引淨域者無越於建立无垢淨塔
於是煥鑿至誠管護含靈爰遇海內
之匠以採他山之石彫鏤累塔藏諸
舍利恭願此功德廣越天溥高隆
有頂利彼靈勸含靈復願
國王永主人天會費報盡之日捨棄
散之名齊於无上之位

建唐大中九年歲在乙亥夏首閏月日建

(裏面)

奉 教宣修造塔使從弟舍知行慶州前梁縣令金銳
都監修造大德判政法事 啓玄
檢校修造僧前奉德寺上座 濟玄
專知修造僧康州咸安郡統 教章
同監修造使從叔行武州長史 金繼宗
同監修造使從叔新授康州泗水縣令 金勳榮
檢校使阿干前執事侍郎 金元弼
檢校副使守溟州別駕 金巖寧
專知修造官洗宅大奈末行西林郡太守 金梁博
勾當修造官前倉府史金 奇言
勾當修造官前倉府史 金 朴基

(銅板크기 縦二十五cm 横二十五cm 横三十cm

로 推定되는바 表面에 十四行 裏面에 十一行 雙鉤陰刻됨)

〔附錄 二〕 慶州昌林寺無垢淨塔願記(경주창림사무구정탑원기)